

삿포로 “자전거 애호가들의 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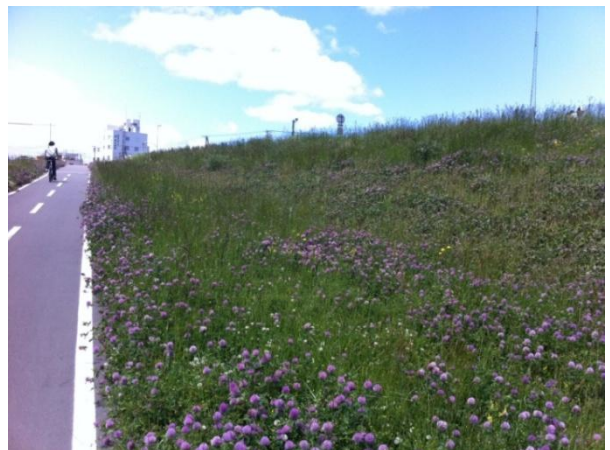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삿포로시에서 중국국제교류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하소운(賀小雲)입니다.

지금 삿포로는 산뜻한 신록과 청명한 공기에 둘러싸여 비도 적게 내리는 가장 좋은 계절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름의 삿포로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맥주를 좋아하는 분에게는 7월 하순부터 개최되는 비어가든, 음악팬에게는 음악축전 PMF(퍼시픽 음악 페스티벌), 커플에게는 도요히라카와 불꽃축제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전거 애호가에게는 즐길거리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삿포로는 자전거 애호가의 천국이라고 해도 좋으니깐요. 이번에는 삿포로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두 곳의 사이클링 로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요히라카와(豊平川) 사이클링 로드, 도요히라카와 오른쪽 강변에 위치한 ‘모이와카미 다리’에서 ‘간조키타 대교’까지 약 11km의 자전거도로입니다. 지금 이 시기의 하천부지는 흰색과 자주색의 클로버가 예쁘게 뒤덮여있으며, 도요히라카와의 흐르는 강물 소리를 들으면서 하얀 자춧빛 용단을 천천히 빠져 나가면 어느새 마음이 활짝 개입니다. 강변 주위에는 축구, 테니스코트 등도 있어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자전거로 달리다보면 때때로 산책 중인 강아지를 만나 같이 놀기도 하면서 느긋하게 다시 페달을 밟아가는 것도 사이클링의 하나의 묘미일지도 모르겠네요.

도요히라카와 사이클링 로드가 조금 지루한 분에게는 시로이시(白石) 사이클링 로드를 추천합니다. 삿포로 컨벤션센터에서 출발하여 아쓰베쓰카와(厚別川)의 무지개 다리를 건너 시로이시구(白石区)를 벗어나 더 나아가 아쓰베쓰구(厚別区)를 지나면 JR 기타히로시마(北広島)역까지 연결됩니다.



<클로버 가득 도요히라카와 사이클링 로드>

시로이시 사이클링 로드 매력은 시가지에 있으면서도 교차점이 지하도로 되어있고 자전거도 보행자도 신호 등으로 멈추지 않아도 되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도중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알맞게 점재되어 있어 지루할 틈 없이 기분좋게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클링 로드 매력은 계절의 변화를 가깝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벚꽃나무의 터널을 지나 언덕길을 내려가면 분홍색 벚꽃과 알록달록한 튤립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벚꽃에 이어 라일락꽃도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푸르디푸른 초록색 터널이 등장하며, 가을이 되면 자작나무와 은행나무잎이 서서히 물들어가고, 울긋불긋 물든 단풍은 보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핑크빛 융단으로 물들여진 봄의 시로이시 사이클링 로드>

여러분, 삿포로에 계신다면 자전거를 타고 사이클링 로드를 달려보는 건 어떠세요? 반드시 삿포로에서 새로운 발견, 감동과 더불어 마음 따뜻한 삿포로시민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삿포로시에서는 ‘삿포로 시내 사이클링 로드 지도 ’를 작성하여 사이클링 로드 소개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삿포로 사이클링 로드 지도 홈페이지

URL : <http://www.city.sapporo.jp/kensetsu/dokan/jitensha/cyclingmap.html>